

“훌륭한 作品 위해 汎 建築人의 參與 바람직”

崔 昌 奎—신진건축 대표

□ 건축전문인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計劃·推進을 主導해야

한 國家나 한 民族이 자주독립을 하여 國家를 형성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우기 國號·領土·主權·國民의 네가지 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을 때만이 國家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다만 이때 國號나 主權은 가변성을 지니며 領土와 國民은 거의 불변성을 지닌다. 따라서 그 민족이나 國家가 역사적으로 쇠퇴하거나 융성하거나 또는 멸망이나 독립하는 것은 國家의 4대요소 중의 가변성 있는 2개의 요소에 의한 작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建國이 아닌 한 나라의 獨立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獨立이란 어떤 한 國家가 他國家나 他民族에 의해 침범·식민화·속국·멸망을 했다가 다시 완전한 國家로서 회복하여 建國한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벗어나 國號와 主權을 확립한 것은 확실히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고구려·백제가 합쳐서 통일 신라가 되어 하나의 國家적 면모를 갖춘 것은 독립이 아니라 통일이 되는 것이지만 명나라나 淸나라의 속국에서 벗어났던 애매한 시기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만 할까. 이렇듯 독립이라는 語義는 매우 抽象的이어서 마치 愛國이나 愛族의 동의어로 변질된 느낌마저 든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 각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獨立의 개념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리핀이 포르투갈이나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리살이 가비메灣에서 봉화를 올리는 등, 오랜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혈투에 의해 획득한 독립,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비교적 적은 파란을 겪고 얻은 독립, 터키의 케말 파샤가 주도하여 페르샤나 소련으로부터 벗어난 자주적 독립, 마야나 잉카帝國이 멸망한 후 3백년이 지나서야 그들에게서 되찾아 낸 멕시코와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들의 獨立史, 금세기에 들어와 결실을 본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독립 등등 다양한 성격의 투쟁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 모두가 民族主義를 내세워 독립을 쟁취하였다는 공통점에서 볼 때 國家형성 요소 중의 人的要素인 國民의 단결된 力量이 그들에게 강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즉 國家의 4대요소 가운데 불변의 요소가 비중있게 작용하여 결국 독립을 쟁취한 많은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립 후, 가변요소인 國號와 主權의 변동이 왜 심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나를 생각해 볼 때 각 요소간에 매우 아리송한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 民族史를 밝히 未來를 제시하는 道場으로서의 機能 다해야

어떤 이는 독립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광복이라고 하며 또 어떤 이는 國號가 다르니까 전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궁극적인 뜻은 동일하지만 그 표현이 다른 것은 독립한 과정의 양상과 방법, 수단과 시대적인 감각의 차이라고 해석된다.

이상과 같은 전지에서 볼 때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해 몇가지의 질문을 하게 된다.

첫째, 독립이나 광복이나, 둘째, 기념관인가 박물관인가. 세계, 쟁취대상을 일본으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멀리 淸國까지도 포함시킬 것인가. 네째, 과연 우리의 자주적인 力量과 행동으로 독립을 쟁취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他力, 즉 국제적 상황이 우리에게 독립

을 안겨 주었는가. 다섯째, 독립된 지 40년이 가까워 오는데 왜 지금까지 독립기념관 건립은 생각치도 못했었는가. 여섯째, 따라서 이상의 5개 항목의 질문을 종합하여 보면 꼭 독립이란 이름으로 기념관을 건립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첨가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해 명석한 해답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구차한 변명과 해석이 분분할 것이다.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한 정확 명료한 답은 역사적·정치적인 면에서 보다 오히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나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 獨立記念館 보다는 民族 博物館 건립이 바람직 해

국민 각자의 입장과 분야에 따라 이에 대한 답은 각각각색일 줄로 안다. 나는 내 자신의 질문에 나의 입장과 분야에 입각해서 나름대로의 답변을 해 볼까 한다. 나의 답변은 객관적·이론적 체계가 정연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一個 無名의 建築人으로서의 견해일 뿐이다.

첫째, 독립이나 광복이나에 대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은 아니고 광복도 아닌 解放이라는 답을 내리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의 독립은 장기간에 이르는 각양각색의 투쟁이 국내의에서 행해지긴 했어도 결정적인 단계에 와서는 세계 강대국들의 의사에 의해 운 좋게 얻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민족적인 투쟁과 운동이 작용되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으나 결국 강대국들의 국제적·외교적 이해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왠지 떳떳하게 독립을 쟁취했다라고 외칠 수만은 없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두번째, 기념관이나 박물관이나에 대해서는 마땅히 박물관이라고 해야 좋을 것 같다. 이유는 建築的인 측면에서 볼 때 기념관만이 기념성이 있고 박

물관은 기념성이 적다는 그러한 논리가 없기 때문이며, 독립에 대한 기록·유물·史料·사진 등과 기타 이에 관한 것들을 진열·전시하여 국민들이 수시로 참관하고 기억·회상·분발·연구·자각·결의같은 어떤 계몽과 교육적인 뜻을 가져야 한다면 박물관이어야 적합하다는 생각이다.

한 개인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지만 기념성이나 관광성, 역사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건축에서 흔히 말하는 바이므로 꼭 기념관이라고 해야 기념성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세째, 독립대상을 일본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의 建國以來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든 시기의 유물과 고증, 史料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좋을 것 같다.

네째, 우리가 말하는 독립 당시의 국제적 상황을 냉철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만약 요즈음 휘물아친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들뜸이 없었다 해도 독립기념관 건립의 문제가 대두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섯째, 이상과 같은 나의 소견에 의해 볼 때 독립기념관이라기 보다는 建國以來의 大歷史博物館을 건립하는 것이 훨씬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게 된다.

이상에서 나는 요즈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건립에 즈음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 보았다.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建築이라는 분야에서 볼 때 사회적 大勢에 의해 건립될 건물이 독립기념관이든 역사박물관이든 간에 그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意見 또한 없을 수 없다. 즉 대지·위치·규모·조형 또는 건립하는 방법과 수단·시기·관리 등등의 많은 의문이 생기게 된다.

신문에서 釜地문제에 대해 보았다. 남산의 옛 朝鮮神宮 자리와 사직공원·파고다공원 등의 견해가 분분한 모양이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왜 반드시 서울에만 건립해야 하는지, 그것이 의문이다.

서울은 우리나라 首都임에 틀림없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참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본래의 의의를 다소 외면한 것이다. 오히려 태백산 정상 檀君出誕地에 넓게 자리잡고 유스호스텔이나 훈련교장으로 병행해서 전국민, 특히 어린 학생 등의 수학여행이나 교육장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밖에 단체나 공무원들이 합숙훈련교육을 받거나 보이 스카우트 또는 걸 스카우트의 국내외행사 등도 치를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좋겠다.

□ 位置, 場所... 서울 중심 피하고 全國民이 이용할 수련도장기능 갖춰야

규모면에서도 이왕 하는 바에는 대담하게 거대한 국민의 大教育場으로 건립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생각해 보면 전국에 수많은 골프장은 부지나 자연을 얼마나 해쳤으며 엄청난 자금이 출자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88년 올림픽에 사용될 대지구모나 투자금액을 생각할 때 과연 이번 독립기념관이든 민족박물관이든 간에 규모나 투자범위의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획해야 할 것인가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관광지인 경주의 보문단지, 제주의 중문단지, 혹은 골프장이나 올림픽의 규모, 투자범위 등과 비교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규모나 투자한계 등에 대한 간접적인 제시는 가능되리라 믿는다.

구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건축적인 면에서도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다. 우선 조형적으로는 어떤 양식을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아마도 李朝 건축양식이 될 것이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자. 프랑스의 뽕피두기념관 및 터키·인도·페루·이스라엘의 같은 종류의 기념관 건물의 건축양식이 그대로 그 나라의 전통건축양식을 따서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따져 보면 이조의 건축양식이 우리의 上古代부터의 양식도 아니며 또 이조 5백년이 우리 전통의 전부도 아닐텐데 우리는 전통건축이라면 이조시대의 양식만을 말하는 것 같으며, 특히 정확도도 없는 불충분한 연구로서 전통을 운위함은 무슨 까닭인

지 모르겠다.

한 예로서 강화의 고적을 보수한 것을 보면 이조말기(아주 가까운 과거)에 그런 단청을 했었는가? 특정인의 기호나 취미가 곧 고증이 되어버린 이 실정에서 전통양식 따위는 아무리 독립의 시간성에 비추어 보아도 이해가 안간다.

기념관의 조형이나 양식은 마땅히 전문가인 건축가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선호로서 결정지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본다.

건물의 기본계획에서부터 모든 건축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공개현상에 부쳐져야 할 것이고 知名度나 권위주의적인 특정건축가에게만 맡길 일이 못된다. 어디까지나 현상실체를 통한 선의의 경쟁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 선정도 우리의 기념관 건립에 외국인의 심사가 무슨 소용이냐는 식의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객관적인 견지에서 반수 이상의 외국인 건축가의 심사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그들의 국내설계경기에 외국인 심사위원을 동원하는 것도 그들에게 체통이나 大家가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 현상공모 통한 記念碑的인 출 통한 建築物 마련 기대

이러한 제안은 그 건물이 영원히 우리 민족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진정 귀중한 건물이 되게 하려면 출속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이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그 과정과 수단에서 건전하고 정상적인, 그리하여 우리가 아끼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들여켜 보면 그동안 우리는 개성이 없는 모양만의 건물을 많이 보아왔다. 때문에 명실공히 공평한 공개설계경기를 통해 이 나라의 뜻있는 많은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훌륭한 작품을 선택해 내야만 기념관의 건립정신이나 목적에도 부합될 줄 안다. 덧붙인다면 구차하고 까다로운 응모규정 따위로 제한을 주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 최근 우리 주변에서 요원의 불처럼 일어난 독립기념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소견을 두서없이 나열

했으나 과연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풍토가 지금까지 그런 국가적 또는 민족적 大事에는 다소 피동적인 자세를 보여왔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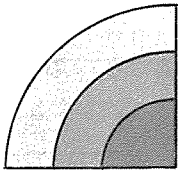
우리는 독립이라는 문제를 격양된

감정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냉철하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진다. 순수하고 진정한 독립이란 어떤 것일까? 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만 같다.

바라건데 민족이나 역사의 양심으로, 기념관을 건립하여야 하며 또 국민 전

체 의지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실천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부디 앞으로 세워질 기념관이 우리 민족의 얼을 담은 훌륭한 그릇으로서 건립되기를 바라며 이상의 글은 필자 개인의 소견임을 밝힌다.



“民族意志의 結晶体인 建築物로 세워야”

姜 哲 求 — 同宇建築設計事務所代表 / 本誌編纂委員

□ 시행착오 없도록 충분한 연구 · 검토 후에 착수해야

이번 汎國民적으로 추진되는 獨立記念館을 건립함에 있어 비록 그것이 일본의 교과서 역사 歪曲事件에서 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방법에 따라 건축계에서 관심을 크게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거론된 지 오래도록 참여의 움직임이 없으니 정말로 건축사들은 <명단>에도 못끼는 무엇무엇이란 말인가. 쉽게 생각해서 결국은 우리 건축사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 무슨 무슨 위원회에 끼거나 맡거나 떨어지는 잠은 저절로 입속에 들어오니(?) 크게 신경 쓸 일은 못된다 하더라도 순간의 씩씩함은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러나 같은 時代에서 민족적인 대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엉뚱한 방법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두는 조치가 꼭 필요하게 될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사회에 건축문화가 진흥될 수 있는 몇가지의 커다란 사업이 있었으나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 것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보다는 예방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건립되어지는 독립기념관은 그 기능이나 형식, 표현되는 像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로 해석되어야 하며 또 다시 되풀이되는 과거의 전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구체화되기 이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서 장소선택과 시

간설정(기획에서 완공까지)이 중요하다. 장소라 함은 기념관의 여러 기능 중 가장 으뜸으로서 기념관의 성격으로 보아 종로 네거리의 변화한 상업지역으로 정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일 반대중이 이용하기 불편한 거리에 동떨어지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도시란 항상 변화하며 움직이는 것이므로 지금의 時点에서 좋은 자리가 몇 십년 후에도 좋다는 것은 상당히 불확실하므로 그 선정장소는 전문가의 협조 없이는 매우 어렵다 할 수 있다. 바로 이점에서 건축사의 독립기념관 건립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숙된 말로 미리 된장 다 풀어놓고 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장소는 아무려면 어떠냐 하는 생각은, 바로 건축사는 건물에만 간여해야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 매우 위험한 것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립도서관으로 남산 어린이회관을 보수하여 쓰고 있는데 우선 건물자체의 건축적인 특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장소선택의 무모함에 실망이 컸었고 그 移轉地도 마땅한 자리가 아니라는 說이 있어 이번 독립기념관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 민족의 얼을 담은 殿堂으로 藝術的 · 記念碑的 價値지닌 作品期待

그 다음의 문제로 時間이다. 고대 역사 속의 기념관처럼 몇십년 몇백년을 두고 이어져 내려오며 세우기에는 사회여건이나 時代性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는 못하겠으나 금방 달구어진 것은 바로 식어지는 법이므로 되도록

무리없는 일정으로 해야 될 것이다. 흔히 몇개월 동안 설계하고 몇년 동안 공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만족할 만한 것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하였다> 뿐이지 <민족적인 지혜와 용기를 일깨워주는 살아 있는 無言의 교육장소>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과업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당대에는 훌륭한 건물이라도 그 時代가 지나고 보면 보이지 않던 恥部가 드러나기도 하므로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다듬어 질수록 그 건물의 質은 좋아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時間을 초월하는 건물로서 오래도록 남겨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때 그때의 능률만을 내세워 재빨리 해치우는 것으로 시간계획이 세워진다면 벼들 한장한장을 모아 세우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여러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또 건축관계 실무자에게도 보편타당한 원칙에서 미래에 대한 眼目을 미처 정리할 시간도 없이 과업이 맡겨 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이미 있었던 우리사회의 건축분야를 더욱 새로운 건축분야로 창조해 갈 수 있다면 독립기념관의 건립은 그 자체의 민족적인 意義와 더불어 우리 건축분야에서도 새로운 하나의 章으로서 기록될 것이다.

지나간 때에도 없었고 앞으로 또 다시 있게되지 않을 독립기념관 건립은 그 설립이유나 목적으로 보아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갈 하나의 사업으로만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의 검토 아래 세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